

사회단신

한보관련 의원 유죄확정판결

한보 비리 사건과 관련, 4명의 의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홍인걸의원과 권노갑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황병태의원과 정재철의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에 4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홍의원과 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각 당은 이들이 상실한 의원직의 보궐 선거나 재선거의 항방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 열려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인 사회과학포럼은 지난 19일 숭실대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 평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최대과제가 언론개혁이라고 지적, 진보정당의 기반조성도 시급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언론의 부당한 역할"과 "제벌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노사면 규탄대회 연세대에서 개최

지난 22일 연세대에서 '전·노특별사면 규탄 및 결사저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청년학생 투쟁대회'가 개최됐다.

연세대, 서강대 등 4대 총학생회장의 발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집회는 서울·경기지역 8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다.

행사후 진행된 예정이었던 가두시위는 경찰의 사전봉쇄에 의해 무산되었다.

전농3동 철거민 4명 26일 석방

지난 5월25일 동대문구 전농3동에서 철거에 항의하다 연행,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방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던 김일준의 4명이 지난 26일 석방되었다.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검찰측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대, 총장수상관련 마찰 빚어

수원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월 20일 명동성당에서 이종욱 총장의 '자랑스러운 카톨릭 설립인' 수상에 대한 반대선전전을 벌였다.

이번 선전전에서 총학생회는 강제 분양교권 및 무책임한 야간학과 증설 등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이총장의 수상 반대 및 고운재단의 횡포를 규탄하였다. 수원대 총학생회는 재단비리 척결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속적인 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신동호회 쉼터스티커 폐기운동 전개

나우누리 'PCS사랑 모임(기가헤르쯔)' 운영진과 회원들이 현재 나우누리, 천리안 기타 통신망에서 '퀄컴(QUALCOMM) 스티커 폐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퀄컴사의 무리한 기술 라이선스로 요구와 국내기업들의 과다 경쟁에 의한 달러 유출에 대한 항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1억 달러 이상이 퀄컴사에 송금되었으며 단말기에 표시된 소비자가격의 4~5%가 라이선스 비로 지불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으로 1.5~2%에서 상승한 것으로 막대한 달러의 유출을 야기, 퀄컴사의 횡포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

이에 기가헤르쯔는 앞으로도 계속 이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당동 철거촌 세입자의 겨울나기

단지 '힘들었던 추억'으로 기억되길
어린이식과 천막에서 겨울날 것이 가장 큰 걱정

온 나라가 IMF 경제 한파로 인해 한껏 움츠러 있는 요즘, 천정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겨울. 행당동주민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게 살 속을 파고든다.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경 행당동 1-2 재개발지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적준용역원 3백여 명과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원한 일일 고용원 2백여 명이었다. 외곽으로는 성동경찰서 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강제 철거 반대 집회를 하러 나왔다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돌아온 주민들은 출입이 봉쇄되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불과 2~3분 사이에 집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으로 2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끌려온 행당동 1-2지구의 철거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대학신문은 물론 'MBC 주부특공대'와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 방영되어 급방이라도 사건이 해결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행당 1-2지구 세입자 김종수씨는 걱정이 앞선다.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날아온 한장의 종이 때문이다. 바로 12월 29일 오후 4시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최종 명령서이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아마 우리는 다시는 행당동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게야. 적준용역에서 하고 있는 철거는 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김씨는 깊은 한숨을 몰아 내쉬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이제까지는 그나마 언론에서 거들어 줘서 우리가 이만큼 버텨 왔지만 앞으로 이야기가 시들해 지면 그 땀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겠지"

그 동안 적준과의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적준용역측에서 가수용 건물을 지어 주고,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으니 철거지역에서 나가 달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다. 이에 세입자 측에서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느구나"라고 생각해 "가수용 건물을 지어 주면 우리가 나가겠다"며 제안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적준측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아도 세입자들은 하루 품팔이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틀전만 하더라도 1만 2천원이던 가스값이 오늘은 1만5천3백원이라는구만. 아이고 기가막혀서"라며 겨울나기 걱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하기만 하다. "크리스마스나 기념 촬영이나 합시다"라는 어느 세입자의 말에 하나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훗날 이사진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현재의 일을 힘들었던 추억으로 떠올리게를 기원하면서.

□사전심의제 위헌판정, 그 이후

가면 쓴 사전심의제에 묶인 자유의 바람
사전심의 존속하는한 표현의 자유 기대할 수 없어

우 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지난 한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정치, 교육분야에 걸쳐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이 음반, 영화 등의 분야에도 불어오기 시작한 97년, 억압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을때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실질적 자유는 바로 우리의 눈앞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판정1년여가 지난 지금 그리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관련법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당국이 직접 영화를 삭제하지 않는 등급제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등급의 판정을 받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심의기구였던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륜)를 대체하여 발족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실질적 측면에서 공륜과 별다른점이 없는 기구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의제의 실질적 존속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표면적 자유만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이 지난해 치뤄진 제2회 인권영화제의 수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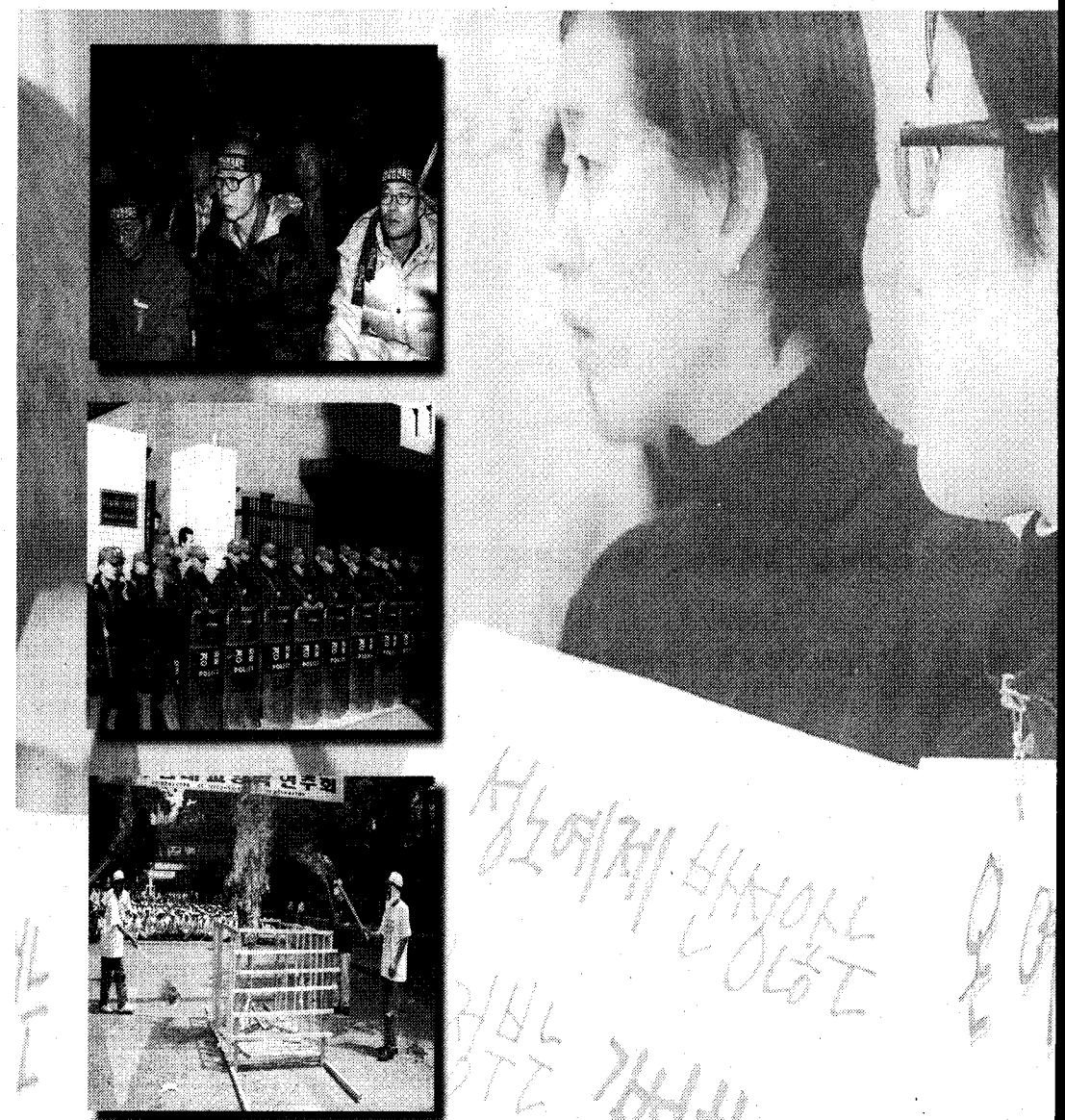
인권영화제는 집행위원회측의 사전심의제 거부 입장표명으로 처음부터 상영장소의 표류현상을 낳았다. 애초 동국대로 확정됐던 인권영화제는 개막

을 한달 앞두고 동국대로부터 상영불가통보를 받았고 몇차례의 상영장소를 변경한 끝에 선택한 홍익대마저도 상영장소인 와우관 폐쇄, 단전 등으로 영화제 진행을 가로막았다. 영화제 집행위와 홍익대 총학생회는 학생회관 휴게실과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발전기를 가동시키며 영화제를 진행했고 홍익대측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를 현주건물 침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일 새벽 홍익대에 경찰을 투입하여 인권영화제 공동주관자인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임성욱씨 등 2명을 연행, 구속했다.

지금 현재도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씨는 지난 10일 제4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가 주는 97인권상을 수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씁쓸한 미소를 짓게도 하였다.

사전심의거부로 빚어진 이러한 결과를 볼때 이미 준비에 들어간 내년 인권영화제의 모습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인권영화제 하나만으로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헌 판정을 받은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불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97사회면 6대뉴스, 그

□한미 행정 협정을 되짚어본다

미 국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경찰 노릇을 할 것인가.

1992년 미군에 의한 '윤금씨씨의 살해 사건'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악하고 잔인한 만행은 우리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겨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약하다 약한 대한민국의 철저한 수호자로 군림하고 있었기에 감히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미군범죄가 언론의 표적이 되어 미군범죄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윤금씨씨가 그렇게 오

단체의 열린 창구가 많아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 에바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범인 미군 윌리엄스 약에스는 96년 6월부터 10월까지까지 동아원에서 남자 동아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96년 12월 23일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2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맺은 한미 행정협정(SOFA)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다.

SOF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군 기지의 무로 사용' '한미 미사일 각서' 등 한미군사관계의 예

한국은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가

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그 때와 비교했을 때 범죄의 건수도 많이 줄었고, 죄질도 변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한 각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92년 당시 정부의 집계로 연간 1천 8백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로 현재는 연간 7백여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정유진 간사는 "정부에서 밝힌 통계상의 수치가 그 정도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 또한 대단히 많을 것이다"며 "예전에는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집단이 없었기에 미군 범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각 시민

속성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정 간사는 "현재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SOFA의 대대적인 개편이 없이는 범죄자를 미군에 인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군을 없애서는 안될 '공기' 같은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땅에서 먹고 자는 비용을 모두 대주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미군이라는 '공기'에는 해로운 이산화탄소 많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것이다. 미군 재판이 벌어지면 의례히 붙어 다니는 수석어인 '미나리' 타국에서 우리 나라의 수호를 위해 건너왔으며, 이 절 문화의 괴리감이 인정되므로 정상참작을 한다'는 포리표를 우리 스스로 뉘 수 있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 전문 커뮤니케이션 그룹 - 유니콥

(주)한국대학신문사, (주)유니콥,
(주)유니콥서비스는
unicoop 가족입니다.



Hot-Line, 유니콥

대학과 대학을 이어줍니다.
대학과 기업을 이어줍니다.
대학과 사회를 이어줍니다.
대학·기업·사회를 이어주는
대학전문 커뮤니케이션 그룹 - 유니콥(unicoop)



서울시 중구 광화동 1가303-1 전화 278-1100/277-1100 팩스 278-5222/263-2583 URL http://www.unicoop.co.kr

■대학전문 미디어 사업
• 전국 140여개 대학에 배포되는 법학종합정론지 / 한국대학신문
• 국내 최초의 대학 전문 CATV / University News Network(UNN)
• 대학내 최첨단 영상 뉴스 네트워크 시스템 / 유니텔 뉴스비전
• 첨단 기술 개발을 이끌어갈 미래 대학생 전문잡지 / 테크사이더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망라한 종합 백과사전 / 대학연감
• 대학졸업예정자를 위한 채용 정보 연감 / 98 기업가이드
• Cyber 공간의 입학·학업·취업·유학정보 / Uni World
• PC통신을 통한 대학정보의 매개 / (전리안) Uroom

■대학전문 물류 복지사업
• 대학생활용품 구판사업의 호시 / 유니콥 서브스
• 대학후생복지 사업의 전진기지 / 한국유니콥
• 인터넷공간의 대학생활용품 전문매장 / University Cyber Shopping Mall

■대학·기업의 종합광고 대행사업
• 대학·기업의 대학생 대상 광고·홍보를 제작 대행
• 전국 40여개 주요 대학신문 매체 광고 대행
• 대학·기업의 광고 홍보(광고·이벤트) 사업 대행

98년 1월 1일부터 유니콥이...